

IBKS Bond Inside

2025년 4월 채권/크레딧 월간전망

2025년 4월말 **한국채 3년물 금리는 2.40~2.60%에 위치할 전망이다**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경로는 2025년 2분기 內 25bp 인하전망을 유지한다. 2025년 4월초 트럼프 행정부 관세안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2025년 2분기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月)은 금통위 직전 2주간의 외환시장 변동성과 내외금리차를 고려할 것이다. 2025년 4월초 韓美내외금리차는 국채 10년물 -135bp, 국채 2년물 -120bp다. 내외금리차는 1개월 전보다 10~20bp 감소했지만, 원달러 스왑레이트가 1개월(2025.5)~6개월(2025.10) 테너에서 상승해 200bp를 상회했다. 2025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페이스가 현재 시장기대보다 늦춰질 것을 반영한** 가격결정이다. 반면에 1년 테너(2026.4) 원달러 스왑레이트는 178bp로 하락세를 이어갔다(1개월前 185bp). 2025년 4월 금통위(4/17) 직전인 2025년 4월 15일 전후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환율조작국) 발표가 예정됐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는 통화정책과 독립적인 고변동성 국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4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4월초 급락한 韓국채금리도 내수진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줄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안 발표(4/2)와 같은 주차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다(4/3). **두 이벤트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2024년 美대선 이후 급등한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을 복기하면, **관세/탄핵에 대한 구체적 정보(실현)는 국채금리(중장기물)의 하락압력**을 높인다. 지금은 관세로 구현된 美행정부 수반首班의 존재감과 韓행정부 수반 부재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 2025년 4월 전망에는 신용위험 급등전망으로 반영했다.

2025년 4월말 **미국채 2년물 금리는 3.70~4.00%에 위치할 전망이다**이다. 2025년 4월초 3.66% 수준보다 높다(4/4). 美연준의 정책금리 인하도 2025년 2~4분기 분기별 25bp씩 총 3회를 유지한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는 시장기대를 부정적으로 상회했다. **구체적 관세안 발표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기간프리미엄 감소) 경기침체 우려를 높였다**.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경로를 바꾸기보단 인하시기(타이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과 성장률경로 불확실성 확대요인으로 동시에 작용 것이기 때문이다. 2025년 3월 전망에서 2024년 12월 FOMC 이후 통화정책 타이밍(月)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는데, **2025년 4월 월간자료를 기점으로 美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강도(인하폭)에 대한 불확실성도 고려한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치를 바꾸는 것은 아니며, 2025년 하반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강도가 분기별 25bp 2회에서 50bp 1회로 전망하는 경로다. 2025년 4월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안 발표 후 시장금리 급락에도 **미국채 3개월물 금리는 4.25%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3개월 內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범위다. 미국 국채 '10년-2년물' 장단기금리차도 34bp로 30bp 수준을 유지했다. 수익률 곡선 기울기(장단기금리차)는 경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가파른 금리 레벨 하락에도 장단기금리차가 일정하게 유지된 점도 2025년 4월 전망에 반영했다. 잘 고정된 미국 초단기(3개월물) 국채금리 레벨로 미뤄 연준의 통화정책과 정치 동학은 독립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2025년 4월말 미국채 10년물은 3.85~4.15% 수준에 위치할 전망이다**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레벨을 전망한 것이 아니라, 미국채 2년물 전망치에 장단기금리차 전망을 가산했다. 2025년 **연초이후 미국채 '10년물-2년물' 장단기금리차 움직임은 평균 30bp, 표준편차 6bp를 유지**했다. 전망범위는 '전망의 불확실성'을 반영했다.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금리의 전망범위 상하단이 크다.

채권/크레딧
 정 형 주 연구위원
 02) 6915-5654
 hj.jeong@ibks.com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표 1. 2025년 4월 韓美 주요 금리 월간전망

항목	현재(%)	월간전망(%)		전망범위(%)		직전전망	실현값
	25.4.4	2025.4	2025.3	2025.4	2025.3	25.3.6	25.3.31
韓국채금리							
통안채91일 (MSB91d)	2.65	2.55~2.70	2.55~2.80	0.15	0.25	2.55~2.80	2.72
KTB3y	2.47	2.40~2.60	2.46~2.60	0.20	0.14	2.46~2.60	2.56
KTB5y	2.55	2.48~2.68	—	0.20	—	—	2.64
KTB10y	2.69	2.60~2.80	2.64~2.80	0.20	0.16	2.64~2.80	2.77
KTB30y	2.51	2.40~2.60	—	0.20	—	—	2.58
KTB10y3y	0.22	0.10~0.25	0.15~0.25	0.15	0.10	0.15~0.25	0.21
KTB10y5y	0.14	0.05~0.15	—	0.10	—	—	0.13
KTB30y10y	-0.18	(0.15)~(0.25)	—	0.10	—	—	-0.19
韓크레딧							
회사채AA- 3년물 금리	3.03	2.93~3.23	—	0.20	—	—	3.12
회사채AA- 3년물 스프레드	0.56	0.53~0.63	—	0.10	—	—	0.56
美국채금리							
UST2y	3.66	3.70~4.00	3.90~4.20	0.30	0.30	3.90~4.20	3.89
UST10y	4.00	3.85~4.15	4.00~4.15	0.30	0.15	4.00~4.15	4.21
UST10y2y	0.34	0.15~0.45	0.20~0.45	0.30	0.15	0.20~0.35	0.32

자료: IBK투자증권

주1: 전망범위는 당월말 민평3사 금리가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의미

주2: 괄호안의 값은 음수를 의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괄호 표기

2025년 4월 채권/크레딧 시장 중장기전망은 다음 페이지 [표 3]에 제시한다. **2025년 연간전망 경로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망경로도 2025년 총 3회(75bp)로 유지한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2025년 연초 전망시점보다 자본차익 여지는 줄었다. 자본차익 기회는 2025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때마다 감소한다.

한국채 10년물 로스컷 3.00%는 추정에 따른 내수진작 기대효과가 2025년 연초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0.20%p를 상회하는 경우다. **2025년 4월까지 추경이 편성되지 않아 추경편성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는 희석**됐다. 더하여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정치권은 조기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2025년 대선일정 이후 정권 안정화까지 경기부양 논의도 대선공약 차원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2025년 4월부터는 이미 **부진한 韓매크로 상황에 재정투입까지 지연되면서 신용위험이 급등할 전망이다**. 2024년 연말이후 크레딧 이슈 발생은 롯데케미칼, 홈플러스 사태 등 현재진행형이다. **석유화학/2차전지/철강/건설/저축은행/부동산신탁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유지**한다. 2025년 2월 전망에서 제시한 크레딧 이슈 모니터링 기준을 [표 2]에 업데이트했다. 중국과 관련한 가중치를 낮췄고, 국내 경기부진이 1~2분기 內 실적 충격으로 작용할 부분에 높은 가중치를 줬다 (가중치 높을수록 부정적).

표 2. 2025년 4월 크레딧 리스크 모니터링 기준

순번	회사채 시장 신용위험 모니터링 기준 (2025.2Q)	2025년 4월 가중치	2025년 3월 가중치	관련업종
1	韓내수부진에 따른 사업부문 매각 AND 2025년 연내 유동성 확보가 사업매각 사유	27	0	일부그룹사
2	2021년 이후 우호적 사이클 경험(주가상승) AND 고정비가 큰 사업으로 사업다각화 전개	22	25	2차전지 석유화학 일부그룹사
3	부동산/건설업 관련 조달/운용/중개 AND 지방 부동산에 대한 높은 익스포저 AND 부동산 부실여신 매각 채널 미비	17	25	상호금융 건설/캐피탈 부동산신탁 일부그룹사
4	2025년 1분기 美트럼프 행정부 관세안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 AND 별도 자본확충 없이 관세 직격당한 경우	14	0	철강
5	2019년 이후 對중국 수출이 주력 비즈니스	10	25	게임 석유화학
6	2021년 이후 중국 저원이 제품(서비스)과 경쟁	10	25	철강/유통 석유화학/게임 2차전지

자료: IBK투자증권

주1: 크레딧 리스크는 당해분기 관련 업종의 EOD 발생가능성(≠발생) 증가를 의미. 연초효과 등 단기 크레딧시장 센터멘트는 미반영

주2: 2025년 4월 가중치 순으로 정렬. 월별 가중치가 높을수록 해당 업종에 높은 신용프리미엄 요구. 가중치 합계는 100으로 설정

주3: 선제적 모니터링의 의미. 실제 신용등급/전망 등급평정은 기업실적에 연동

표 3. 2025년 4월 채권/크레딧 중장기 전망

제시일	항목	제시일 수치	최근 (4/4)	목표치 (%, bp)	기대 손익 (bp)	실현 손익 (bp)	로스컷 (%, bp)	투자시계
국채시장								
4/7/25	통안채91일물(MSB3m) 금리하락 2.55%	2.87	2.65	2.55	32	+22	3.00	4/17/25
4/7/25	韓국고채3년물 금리하락 2.40%	2.47	2.47	2.40	+7	-	2.75	6/30/25
4/7/25	韓국고채10년물 금리하락 2.70%	2.69	2.69	2.70	+1	-	3.00	6/30/25
4/7/25	美국채10년물 금리하락 3.90%	4.00	4.00	3.90	+10	-	4.60	6/30/25
크레딧시장								
4/7/25	공사채AAA 3년물 스프레드 확대(국채대비) 목표치 절대금리 환산 2.74%	0.25	0.25	0.34	+8	-	0.17	9/30/25
4/7/25	회사채AA- 3년물 스프레드 확대(국채대비) 목표치 절대금리 환산 3.04%	0.56	0.56	0.64	+8	-	0.49	9/30/25
4/7/25	카드채AA+ 3년물 스프레드 확대(국채대비) 목표치 절대금리 환산 2.92%	0.41	0.41	0.52	+10	-	0.30	9/30/25
4/7/25	캐피탈채AA- 3년물 스프레드 확대(국채대비) 목표치 절대금리 환산 3.04%	0.55	0.55	0.64	+9	-	0.45	9/30/25
4/7/25	회사채AA+5년SP 축소 회사채AA-3년SP 확대 (초우량+장기물 조합선택)	1	0	5	4	-1	-5	6/30/25
4/7/25	캐피탈AA-3년SP 축소 카드AA+3년SP 확대 (카드社 상대적 부진 전망)	14	14	8	6	0	20	6/30/25
4/7/25	회사채AA+5년SP 축소 회사채AA05년SP 확대 (장기물 內 초우량물 선택)	6	6	8	2	0	4	6/30/25

자료: IBK투자증권

주1: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또는 국채금리 상승 전망에 대한 기대손익은 절대값으로 표기

주2: 초과손익은 전망의 방향성+목표치를 상회할 경우를 의미

주3: 크레딧 전략은 상대적 스프레드 축소/확대를 의미

2025년 4월에는 韓국채 초장기물 금리에 대한 전망을 추가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중장기 전망이 1.9~2.1% 수준을 이어간다면, 2025년 4월 기준 국채금리 전반에 걸친 **2.40~2.60% 금리레벨은 실질성장률 추계(Projection) 경로를 감안할 때 조달매력이 높다**. 그러나 노골적인 초장기 국채 발행 증가는 국가차원의 부채 듀레이션을 키우고, 시장금리 발작을 유발한다. 이는 국민연금, 생명보험, DB형 퇴직연금의 자산-부채만기 불일치 문제와 유사하다. 2025년 4월 주식시장-채권금리 동반 급락은 이러한 문제를 심화한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잠재성장률 경로를 전제한다면, **시장금리 레벨이 낮아진 상황에서 장기/초장기물 발행비중은 2025년 전반에 걸쳐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2025년 4월 **채권금리 급락, 주식시장 붕괴가 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 부담을 직격**한다.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단시일 內 시장금리/주가 반등이 관측되지 않으면 초장기물에 대한 수요도 우호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초장기물 수급부담은 韓국고채 15년물로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韓국채 30년물-10년물 장단기금리차는 15~20bp 역전을 유지했다. 국채 30년물-15년물 장단기금리차를 살펴보면, 韓국채 ‘15년-10년’ 금리차는 10~15bp에서 등락해 상대적 변동 폭이 크다. 반면에 ‘30년-20년’ 스프레드는 -10bp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매수後 보유).

표 4. 초장기물 금리에 영향을 줄 중장기 잠재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계(Projection)경로

항목	2024	2025	2026 (2년 후)	2030 (5년 후)	2035 (10년 후)	2040 (15년 후)	2045 (20년 후)
韓실질/잠재성장률(% , %p)							
기본전망	2.0	1.5	1.8	1.3	1.1	0.7	0.6
낙관시나리오		+0.1	+0.3				
비관시나리오		-0.1	-0.4				
韓소비자물가 상승률(% , %p)							
기본전망	2.3	1.9	1.9	2.0	2.0	2.0	2.0
낙관시나리오		0.0	+0.2				
비관시나리오		0.0	-0.3				
韓성장률+물가상승률							
기본전망	4.3	3.4	3.7	3.3	3.1	2.7	2.6
낙관시나리오		3.5	4.2				
비관시나리오		3.3	3.0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주1: 성장경로는 이은경, 천동민, 김정옥, 이동재(2024),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제2024-33호.
주2: 성장률+물가상승률 경로는 기본전망에 낙관시나리오와 비관시나리오를 단순합산한 수치

2025년 3월 크레딧 시장 여전채 강세는 레버리지성 자금유입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Projection)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을 기점으로 크게 악화한다. 2024년 24조원의 누적준비금이 2028년 이후에는 연간 10조원씩 감소한다. 구체적 수치를 살펴보면, 수입증가는 9~10조원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한다. 문제는 2025년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지출증가규모가 수입증가규모를 지속적으로 1~2조원 상회하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금리레벨이 꾸준히 하락했다. 여기에 레포펀드 레버리지(250~400%) 설정강도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확신은 재정우려가 큰 대형자금들의 레버리지 수요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여러 기금/제도 중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추계경로 상에서) 빠르게 악화된 것은 채권시장 내 대규모 레버리지성 자금 회전回戰의 원동력일 가능성이 높다(회사채 시장의 수익률 추구 현상). 보험기금의 특성상 제도개편 공포시차가 단기지출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레버리지성 자금 유입은 꺾잡집행을 반복할 전망이다. 집행 타이밍을 가늠할 만한 시장지표는 2025년 연간전망 자료에 정리했다.

2025년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2.25%로 가정한다면, 2025년 4월초 통안채91일물(2025년 7월) 민평금리 2.60% 기준 추가자금 설정유인은 여전히 높다. 2025년 3분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 전체가 만기에 들어오는 2025년 5월말까지 초단기(91일물) 무위험금리가 2.65%를 상회할 경우 2025년 레버리지성 자금이 재차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레버리지성 자본차익 기회는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2025년 한국 무위험금리(91일물) 수준이 2.40%를 하회할 때 몇을 것이다.

표 5.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준비금 전망(2023~2032년)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3년후)	2029	2030 (5년후)	2031	2032	연평균 증가율
수입	93	99	107	115	124	134	144	156	165	175	7.2
수입증감규모		6	8	8	9	10	11	11	9	10	
지출	92	100	110	122	133	144	155	166	180	195	8.7
지출증감규모		8	10	12	11	12	10	11	14	15	
재정수지	1	-1	-3	-7	-9	-11	-11	-11	-15	-20	
누적준비금	25	24	21	14	5	-6	-16	-27	-42	-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BK투자증권

주1: 누적준비금은 결산상 잉여금을 뜻하며, 음수로 표기된 준비금은 준비금 소진 후 발생한 누적 적자액을 뜻함

주2: 2023,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기결정된 7.09%, 2025~2032년은 매년 2.06%(최근 3년 평균)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2030년부터 8% 상한 유지를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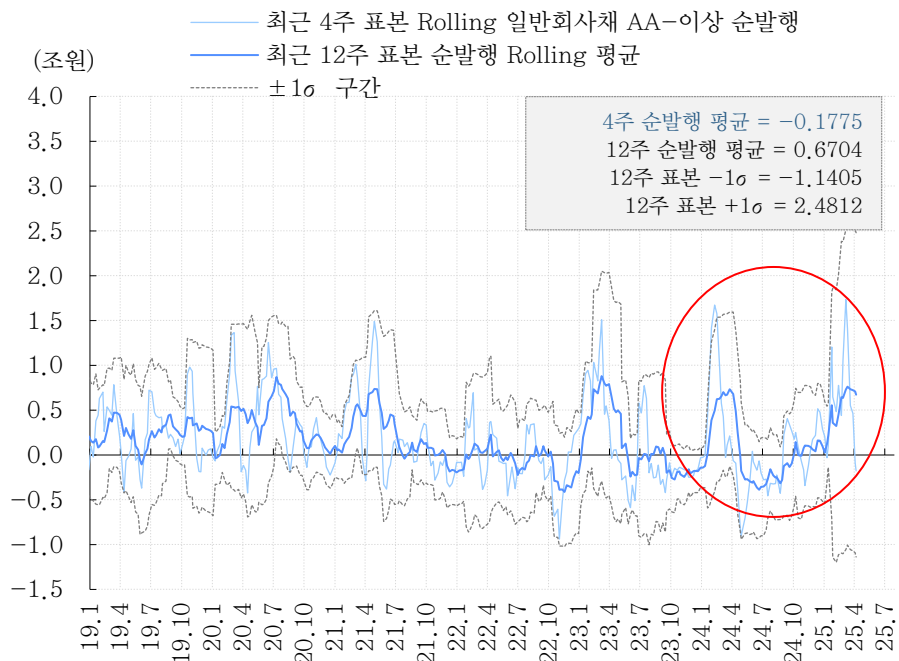
주3: 단위는 조원, 편의상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일반회사채 순발행규모를 살펴보면 2025년 1분기에도 연초효과가 발생했다. 2025년 3월 발행사 회계처리 이슈로 발행시장은 소강상태다. 그럼에도 RP펀드 설정으로 여전채 강제 현상이 이어졌다(DART 카드/캐피탈채 2~3bp 언더발행). **국채시장에 대한 레버리지성 자금집행이 경쟁심화(수익률 추구현상)와 맞물리면서 크레딧 센티먼트(루프)를 강화했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A+이하 일반회사채의 2025년 1분기 순발행규모는 2024년만큼 강하지 않다(그림 2). 디레버리징이 진행중이다. 홉플러스 사태의 전개방향도 중요하다. 하위등급을 소화하던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제재는 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이일드 수요위축은 시차를 둔 발행사 신용경색(차환실패)으로 귀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용경색 국면에서 비우량물 조달부진은 **‘고위험 크레딧을 매수하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부작용은 시장에서 관측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완전판매가 하이일드 신용경색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적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신용공급 측면에서 고위험수요를 일정부분 유지해야 하므로 관련사태는 ‘고객의 이해가능성’과 ‘일선-線 판매채널의 이해도’를 구분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ELS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로 초우량 은행계열 금융주주에서 반복되는 것은 시장/신용위험이 아니라 운용위험**이다. 2025년에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직원의 이해도’와 혼용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초우량 신용공급원’ 경로로 제재리스크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것과 동치다. 그 과정에서 수익성은 악화할 전망이다(비효율적 신용공급). 크레딧 시장 전체로는 초우량 신용이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강화 루프에 귀속되는 것은 주식지분(Equity)에 부정적일 것이다. 장점도 존재한다. 당국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만큼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측면에서 잦은 신용경색은 초우량물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년 공사/은행채 매수포지션은 듀레이션 확대전략을 가미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림 1. 2019년 이후 회사채 AA급 이상 순발행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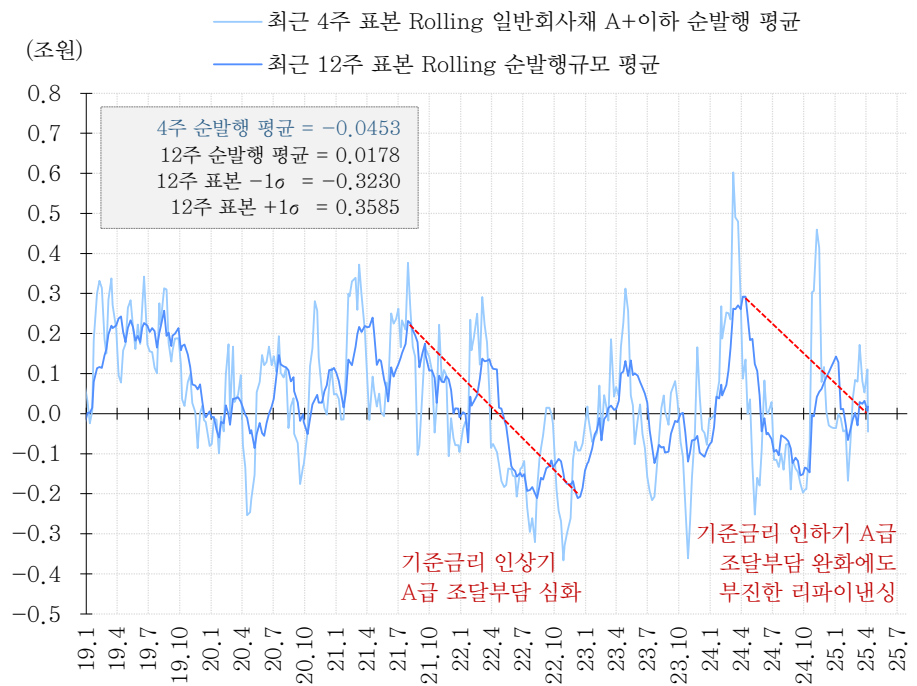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IBK투자증권

주1: 소수점 4자리 표기는 편의를 위해 억원 단위로 조정한 결과. 예를 들어서 0.2219는 2,219억원을 의미

주2: 일반회사채 발행시장은 매년 1~2월 계절적으로 순발행규모가 급증하는 연초효과 현상이 발생

그림 2. 2019년 이후 일반회사채 A+이하 순발행규모



자료: 인포맥스, IBK투자증권

주1: 소수점 4자리 표기는 편의를 위해 억원 단위로 조정한 결과. 예를 들어서 0.2219는 2,219억원을 의미

주2: 일반회사채 발행시장은 매년 1~2월 계절적으로 순발행규모가 급증하는 연초효과 현상이 발생

2025년 4월 자료에서는 2025년 2월에 제시한 전략을 대부분 마감했다. 전망시점에서 투자시계를 2025년 1분기말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2025년 1분기 제시한 채권/크레딧 전략의 실현손익은 기대손익을 10~15bp 초과**했다. 2025년 누계로는 +92bp 성과다. 전략 전반에 걸친 편차는 20bp이며, 2025년 4월초 미국채 10년물 급락이 대부분의 초과이익을 설명한다.

최근 미국채 10년물 금리 급락은 무역분쟁에 따른 충격 결과다. 2025년 4월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안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자극했다. 한국과 미국의 국채금리는 동반 하락했다. 주식가격도 기업의 순이익/배당 악화(기대)로 급락했다. 韓美 국채금리가 수익률 곡선 전반에 걸쳐 15~20bp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현금흐름 측면에서 금리(할인율) 하락을 상회하는 디스카운트 요인을 반영**했을 것이다. 투자자가 신용위험 감내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유사한 시기에 한국은 대통령 탄핵이슈가 있었다. 2025년 4월초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025년 3월말보다 20bp 하락했다. 달러지수도 2025년 3월말 103.8에서 101.9pt까지 하락했다. 미국 시장가격 변화가 컸기 때문에 한국의 국채금리 급락도 미국發 동인이 강하게 작용했다. 향후 전망경로는 2024년 4분기 美대선 직전의 미국채 10년물 금리 레벨 3.80%에 주목한다. **2024년 1~3분기 미국채 10년물 금리평균은 4.18%, 편차는 27bp**다(일표본). 제약적 정책금리(FFR) 수준에서도 미국 매크로 펀더멘털은 상당기간 견조했다. 미국10년물 국채금리가 4.1%를 상회하며 (기대) 중립금리보다 제약적이라도 美경기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표 6. 2025년 채권/크레딧 전망내역

제시일	종료일	항목	제시일 수치	종료일 수치	목표치 (% , bp)	기대손익 (bp)	실현손익 (bp)	투자시계
2/6/25	4/7/25	韓국고채3년물 금리하락 2.46%	2.57	2.47	2.46	+11	+10bp	3/31/25
2/6/25	4/7/25	韓국고채10년물 금리하락 2.64%	2.81	2.69	2.64	+17	+12bp	3/31/25
2/6/25	4/7/25	美國채10년물 금리하락 4.18%	4.52	4.00	4.18	+34	+52bp	3/31/25
2/6/25	3/5/25	美國채2년물 금리하락 4.05%	4.22	4.02	4.05	+17	+20bp	3/31/25
2/6/25	2/28/25	韓회사채AA급 수요예측 낙찰금리 (하단, 상단, 평균)	2.90	2.98	2.83	+6	-2bp	2/28/25
			3.10	3.05	3.05			
			3.00	3.02	2.94			

2025년 누적성과

누계	+92bp
평균	+18bp
편차	+20bp

자료: IBK투자증권

주1: 수요예측 낙찰금리 상/하단은 전망기간 동안 진행된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규모로 가중평균한 수치

주2: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단위 생략했으나, 등위에 있는 컬럼에 표시 (% , bp)

표 7. 최근 10년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연도	회수	제출일 의결일	정부안 (A)	추정규모 국회확정 (B)	(B-A)	정부안 편성내역	규모	정부안 재원	규모
2016	1회	7.26 9.2	8.9	8.8	-0.1	지방재정보강	3.7	세수실적개선	9.8
						지역경제활성화	2.3	내국세	9.5
						구조조정지원	1.9	교통세	0.7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	1.9	관세	-0.4
						국가채무상환	1.2	세계잉여금	1.2
2017	1회	6.7 7.22	10.6	9.6	-1.0	일자리창출	4.2	예상 초과세입	8.8
						지방재정보강	3.5	세계잉여금	1.1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	2.3	기금여유자금	1.8
						일자리 여건개선	1.2		
2018	1회	4.6 5.21	3.9	3.8	-0.1	청년 일자리 대책	2.9	세계잉여금	2.0
						구조조정지원/업종 대책	1.0	기금여유자금	1.8
								한은잉여금	0.6
2019	1회	4.25 8.2	6.7	5.8	-0.9	경기회복/민생경제지원	4.5	국채발행	3.6
						미세먼지대응 등 국민안전	2.2	기금재원	2.3
								특별회계재원	0.4
								한은잉여금	0.3
								세계잉여금	0.06
2020	1회	3.5 3.17	8.5 (11.7)	10.9	2.4	민생/고용안정 지원	3.0	국채발행	10.8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2.4	한은잉여금	0.7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2.3	기금차입금	0.4
						지역경제 회복지원	0.8	기금여유자금	0.3
								세입결손	-3.2
2020	2회	4.16 4.30	4.0	8.0	4.0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7.6	기금여유자금	1.2
						지출구조조정	-3.6	외평기금 자산매입 축소	2.8
2020	3회	6.4 7.3	16 (27.4)	15.8	-0.2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기보강 대책	18.9	국채발행	23.8
						금융지원 패키지	5.0	기금재원	2.3
						지출구조조정	-9.2	세입결손	-11.4
2020	4회	9.11 9.22	7.8	7.8	0.0	소상공인 등 긴급피해지원	3.8	국채발행	7.5
						긴급돌봄 지원 등	2.2	기금차입금	0.3
						긴급 고용안전 패키지	1.4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0.4		
2021	1회	3.4 3.25	15	14.9	-0.1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6.9	국채발행	9.9
						방역대책	4.1	세계잉여금	2.6
						긴급고용대책	2.8	기금재원활용	1.7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1.0	한은잉여금	0.8
						국고채 이자 등	0.2		
2021	2회	7.2 7.24	31.8	32	0.2	코로나19 피해지원	15.7	초과세수	31.5
						지역경제 활성화	12.6	기금재원활용 등	1.8
						백신/방역 보강	4.4	세계잉여금	1.7
						고용 및 민생안정지원	2.6		
2022	1회	1.24 2.21	14	16.6	2.6	소상공인	11.5	국채발행 (초과세수, 주4)	11.8
						백신/방역보강	1.5	공자기금 여유자금	2.7
						예비비 보강	1.0		
2022	2회	5.13 5.29	52.4	55.2	2.8	소상공인 지원	26.3	초과세수	53.8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	세계잉여금 및 기금여유재원 등	8.1
						국채상환	9.0		
						방역보강	6.1	지출구조조정	7.0
						민생/물가안정	3.1		
						예비비보강	1.0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IBK투자증권

주1: 단위는 조원, 추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직전예산보다 증가된 규모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

주2: 괄호 안의 추정규모는 세입감액 경정(세입결손을 포함한 추정규모를 의미)

주3: 정부안 편성 내역과 정부안 재원은 총계 기준

주4: 초과세수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승인 이후 활용가능하므로 우선적 국채발행으로 2022년 제1회 추정편성 재원을 확보

IBK투자증권 채권/크레딧 발간내역(2025)

중장기전망

[2025/4/7](#) 2025년 2분기 자산배분 솔루션

[2025/1/15](#) 2025년 채권/크레딧 연간전망

월간전망

[2025/4/7](#) 2025년 4월 채권/크레딧 전망

[2025/3/6](#) 2025년 3월 채권/크레딧 전망

[2025/2/6](#) 2025년 2월 채권/크레딧 전망

한국은행

[2025/2/25](#) 2025년 2월 금통위 리뷰

[2025/2/21](#) 2025년 2월 금통위 프리뷰

[2025/1/16](#) 2025년 1월 금통위 리뷰

[2025/1/13](#) 2025년 1월 금통위 프리뷰

[2024/11/28](#) 2024년 11월 금통위 리뷰

FOMC

[2025/3/20](#) 2025년 3월 FOMC 리뷰

[2025/1/31](#) 2025년 1월 FOMC 리뷰

중립금리

[2025/2/25](#) 2025년 2월 금통위 리뷰 (참고: p.8/[11](#)/[12](#)/[14](#)/[15](#))

[2025/1/16](#) 2025년 1월 금통위 리뷰 (참고: p.[10](#))

[2025/1/15](#) 2025년 채권/크레딧 연간전망 (참고: p.18/[23](#)/[24](#)/39/40)

경제성장률

[2025/2/25](#) 2025년 2월 금통위 리뷰 (참고: p.[4](#)/8/9/[10](#)/[14](#)/16/[17](#))

[2025/1/16](#) 2025년 1월 금통위 리뷰 (참고: p.6/[10](#)/[11](#))

[2025/1/15](#) 2025년 채권/크레딧 연간전망 (참고: p.[21](#)/[22](#))

인플레이션

[2025/1/15](#) 2025년 채권/크레딧 연간전망 (참고: p.[29](#)/[30](#))

관세

[2025/2/25](#) 2025년 2월 금통위 리뷰 (참고: p.[8](#)/11/13/[14](#))

[2025/1/15](#) 2025년 채권/크레딧 연간전망 (참고: p.11)

참고사항

1. 괄호 안의 '참고'는 키워드가 속한 페이지를 의미, 전후 맥락을 감안해 임의적으로 분류
2. 특정 키워드에 대하여, 해당 자료 내에서 중요도 높은 페이지에 **강조** 표시
3. 항목별 분류기준 내에서는 발간일자가 빠를수록 상위에 위치
4. 중장기전망은 연간전망/하반기전망으로 구성
5. **경제성장률** 키워드에 대한 분류는 단기/중장기 경제성장률(내수) 맥락을 포괄
6. **중립금리** 키워드에 대한 분류는 내재금리 맥락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

주요일정

1. **2025년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16, 2/25, 4/17, 5/29, 7/10, 8/28, 10/23, 11/27
2.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 공표는 2/25, 5/29, 8/28, 11/27 (분기말 직전월)
3. 금통위 의사록은 2/4, 3/18, 4/11, 5/7, 6/17, 7/15, 7/29, 9/16, 10/17, 11/11, 12/16 공개 예정
4. **2025년 FOMC**는 1/30, 3/20, 5/8, 6/19, 7/31, 9/18, 10/30, 12/11 (Day 2, 한국시간 기준일)
5. FOMC 경제전망보고서(SEP) 공표는 3/20, 6/19, 9/18, 12/11 (Day 2, 한국시간 기준일)
6. **2025년 ECB** 통화정책결정(MPM)은 1/30, 3/6, 4/17, 6/5, 7/24, 9/11, 10/30, 12/18 (Day 2)
7. **2025년 BOJ** 금정위(MPM)는 1/24, 3/19, 5/1, 6/17, 7/31, 9/19, 10/30, 12/19 (Day 2)

Abbreviation and Definitions

축약어	세부설명
KTB	한국국채(Korea Treasury Bond)
MoM	전월대비
MTD	월초이후
MSB	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
pp	퍼센트포인트(%p)
QoQ	전분기대비
R+	자기등급 대비 스프레드
SP	스프레드
T+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
YoY	전년대비